

序文

距今一千九百四十餘年前 金海龜旨峰우에 卯生君主로 下降하신 駕

洛太祖大王은 今日一千萬海金の始祖할아버지이시다. 洛東江畔의

기름진 터에 悠悠綿綿 五百年 동안이나 太平聖代를 이루어 오던 駕

洛王國은 第十代讓王때에 이르러 나라를 新羅에 禪讓하여 以國易仁

의 天下大道를 이나라 大地위에 뿌리깊이 박으셨다. 始祖大王의

宏遠하신 遺業과 無窮하신 聖德을 이어 받은 興武王(諱庚信)은 三國

統一의 一大聖業을 完成하여 이나라 萬年鴻基를 創建하시었다.

이로부터 吾金の 先祖에는 賢臣將相이 雨後竹筍처럼 輩出하시어

서 經國濟世의 許多한 勲功을 남기시었으니 오늘의 海金은 果

경국제세 허다 훈공 남기시었으니 오늘 해금 과

然^연 異彩^{이채} 있는 巨族^{거주} 으로서 太祖^{태조} 大王^{대왕} 의 聖德^{성덕} 을 받들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駕洛^{가락} 魂^혼 을 三千里^{삼천리} 이 江山^{강산} 에 빛내주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金海^{김해} 金氏^{김씨} 나운 矜持^{긍지} 로서 어디까지나 先陵^{선릉} 을 守護^{수호} 하고 우리의

氣像^{기상} 인 崇高^{승고} 한 花郎^{화랑} 精神^{정신} 을 이어받은 后裔^{후예} 로서 遺業^{유업} 을 기리

繼承^{계승} 保存^{보존} 世傳^{세전} 하므로써 崇祖^{승조} 敬宗^{경종} 의 大義^{대의} 에 서서 大同^{대동} 團結^{단결} 할 것

이며, 大韓^{대한} 甲族^{갑족} 의 榮譽^{영예} 을 더욱 빛내어서 后孫^{후손} 萬代^{만대} 繼繼^{계계} 承承^{승승} 할

수 있도록 盡力^{진력} 竭力^{갈력} 하고 나아가서는 自由^{자유} 大韓^{대한} 의 民主^{민주} 建設^{건설} 과 救

國^국 統一^{통일} 을 위한 先鋒^{선봉} 이 될 것을 念願^{념원} , 또한 自誓^{자서} 하는 바이다.

畏濫^{외람} 하게도 末族^{말족} 이 이번에 우리 近親^{근친} 近族^{근족} 間^간 의 世系^{세계} 만이라도 修

譜^보 精版^{정판} 하는데 微力^{미력} 이나마 誠力^{성력} 을 傾注^{경주} 하였으나 編纂^{편찬} 에 있어 未

修^수

備^비한 點^점이 많음을 自^자 認^인하며서도, 나의 念^염 願^원이며, 우리 家^가 門^문의
 宿^숙 願^원이었던 이 한 親^친의 家^가 譜^보가 完^완 成^성된 데에 無^무 限^한한 喜^희 悅^열을
 느끼며, 完^완 譜^보되기까지 熱^열 誠^성어린 努^노 力^력과 誠^성 力^력을 다해 주신
 宗^종 族^족 여러 분에게 感^감 謝^사드리고, 따라서 이 家^가 牒^첩이야 말로
 親^친 族^족 間^간의 敦^돈 睦^무과 宗^송 祖^조 爲^위 先^선의 바탕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또한 本^본 編^편은 將^장 次^차 修^수 譜^보되는 大^대 同^동 譜^보에 一^일 考^고가 될 것으로 믿
 는 바이니 後^후 孫^손들은 永^영 世^세의 眞^진 本^본으로서 貴^귀히 간직 할 것으
 바라는 마음 懇^간 切^절하다.

一九八五年 乙丑 新春



副正公二十一世孫

億燮(完億)

遠燮(遠龍)

謹識

駕洛國 璿源世系

太祖皇太王

始祖

諱首露

在位一百二十年
太王位三十八年
元年壬寅(新羅儒
理)壬午(後漢光武建武
六年)三月三日誕降于
龜旨峰弁韓九于
推戴為王是月望
日即位建國于弁
韓舊地國號大伽
倻或云伽倻加羅
金山都金官城遂
定版圖東至黃山
津今梁山北至伽倻
山(今居昌陝川)西南
山(今居昌陝川)西南
際大海分封五弟
于五伽倻一曰阿
羅伽倻(今咸安)二曰
古寧伽倻(今咸昌)三

璿源世系

金海金氏
出于駕洛

金海本駕洛或稱後改金官國新羅法真王為金官郡文武王置金官小京景德王改今名仍為小京高麗太祖降為府後又降
為防禦使元宗為防禦宗郡金昭平密城之亂又拒三別抄有功陞為金寧郡護府權桓為都護以鎮之。
忠烈王二年以殺按廉使劉穎降為縣後陞為全羅牧忠宣三年汰諸牧復金海府本朝因之 世廟朝置鎮焉

二世

子道王諱居登

在代理位三十
七年王位五十
四年凡九十一年
太祖大王百二
十一年壬寅(新
羅阿達羅)九年後漢
桓帝延熹五年承
命代理國政○
元年己卯(新羅素
鮮)四年後漢獻帝建安
四年即位建宗廟
于宮闕之良方
平地(今崇善殿址)
○三年辛巳與
新羅和親○十
一年己丑浦上
八國聯兵來侵
遣王子請援於
新羅羅王命太

三世

子成王諱麻品

二云馬品
在位三十八年
元年癸酉(新羅沾
鮮)五年蜀漢延熹十六
年九月十七日即
位○三十九年
辛亥正月二十
九日崩御一云
母后神女庚辰字王越
九年戊子誕生○五年
三月三日從父王離塵同
為上并有史蹟又云庚戌
崩云○陵無傳

四世

子德王諱昆彌

二云今勿
在位五十五年
元年辛亥(新羅佛
禮)八年曹惠帝元康元年
正月二十九日
即位○二年壬
子母后趙氏崩
○五十六年丙
午七月八日崩
○陵無傳

五世

子明王諱伊品

二云伊品
在位六十一年
元年丙午(新羅訖
鮮)十七年東普穆帝永
和年七月八日即
位○二年丁未
母后崩○六十
二年丁未四月
十日崩○陵在
金海陵洞未詳○
異國兵禍每因金陵疏
而不知葬法疑者志不實
物輒掘陵還封○今長有
面陵有巖有上下二陵三
階及左將軍石尚存

六世

子神王諱坐知

見下

后諱好仇祖父宗

正監諱匡(趙匡妻
名慕良詩太后侍勝臣)
壬子崩○陵無傳

后諱阿志祖父阿

干諱我躬(我躬
本名我刀以弁韓九于之
一人太祖王降誅時祇迎
之)○丁未崩○
陵無傳

后諱貞信父司農

卿諱克忠○丁
未崩○陵同原下